

#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5  
May 2019  
Vol.7 No.4

- 부활주일예배
- 세례식 / 가정의 달
- 교육부 / 코람데오
- 칼럼 / 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기질학교에 참가한 커플들이 서로의 장점과 다른 점을 알아가며 이해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양영 기자>

## ‘기질을 배우니 이제 당신이 이해돼요’

### ■ 주안에가정 세미나 (기질학교)

가정의 달인 5월을 몇일 앞둔 4월 26일 부터 27 일까지 1박 2일동안, 바닷내음이 코를 간지럽히는 Oxnard 의 한 호텔에서 주안예교회가 주최하는, “관계이해와 회복을 위한 세미나” 가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강의를 최혁 담임 목사가 직접 담당하셨으며 총 6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4가지의 우리의 체질을 그 종류별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주

시며, 성격이라는 포장 속에 숨겨져있던,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소중한 시간이였다. 200여명의 성도들이 참가하여 빈자리가 없이 꽉 찬 강의실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빛을 발하는 눈동자들로 인하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 갔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조차도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께, 그리고 많은 준비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인도하신 목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주안에가정” 을 통하여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며 소통의 시작과 더불어서 변화와 회복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서 넘쳐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예수님께서 간직하신 모든 기질의 장점들만을 닦아가기를 욕심내본다.

| 오희경 기자 |



■ 부활주일 예배

## ‘부활신앙, 말씀과 삶의 통합으로 나타내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기독교의 자랑중에 최고의 자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019년도 주안예교회의 부활주일예배는 MP채플과 밸리채플이 각 채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돌리는 은혜로운 부활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성가대의 부활절 찬양은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빠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ICY에서 기획, 연출, 출연, 감독 하에 촬영한 '당신의 마음속 룸메이트는 누구입니까?' 라는 영상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룸메이트가 되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의 부활주일 말씀은 믿음 시리즈(13) 강해로 "믿음은 통합이다" 라는 소재목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에서 연출하므로 부활에 동참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안예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각 채플의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2019년도 부활주일예배가 우리 영혼 가운

데 깊이 새겨져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는 Happy Easter People이 되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박경숙 기자 |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신앙을 되새기는 예배와 행사들이 밸리와 MP채플에서 열렸다. <사진: 양영, 최호기 기자>



■ 교우동정

## ‘축하해요, 감사해요... 아름다운 가정 복된 만남’

**Ernie, Misuk Baker (MP)** 4월 6일 토요일 오후, 꽃들이 화사하게 자태를 뽐내는 따듯한 봄날, 파사디나에 위치한 베이커 성도님 부부(Ernie&미숙)의 새로운 보급 자리에 우리 부부와 민유선 집사 부부가 초대되어 다녀왔다. 매년 1월 1일 Rose Parade가 시작되는 곳의 맑은 편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담한 콘도였다.



베이커 성도님 부부는 Bakersfield에서 사시다가 지금 집을 리모델링해서 이사 오셨다고 한다. 두루마리 휴지와 키친타월, '난'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자 Ernie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Korean traditional?"이라며 웃으셨다. 안에는 많은 지인들과 예전 교회 교인들, 친구들, 첫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 예비며느리도 있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모두 웃고 떠들며 행복해 하는 모습들이 뒤에있는 거울에 비춰져 마치 그림 같다.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20대 초반에 낯선 땅 한국에서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고 지금까지 살아 오신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떠나기 전 사진 한장을 부탁 드렸더니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애완견 하니(honey)와 함께 포즈를 취해 주셨다. 아름다운 새 집에서 하나님 잘~ 믿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문을 나섰다. | 이성은 기자 |



**17목장(벨리)** 벨리 17목장에서는 봄나들이 행사로 랭캐스터 파피꽃 구경을 다녀오셨다. 여고 시절에 가을이 되면 해마다 덕수궁 국화꽃 전시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신다며 봄나들이로 캘리포니아주의 상징인 파피꽃밭에서 마음껏 봄의 시간을 가졌고, 돌아오는 길에는 시골집 같은 동네 커피숍에서 다과의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감사하였다.

**최호기 안수집사/민유선 집사(MP)** 최호기 집사님 가정이 지난 4월 29일 이사를 했습니다. 9년 넘게 살던 집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옮기게 되어 심적인 고생도 많았지만, 원래 살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보급자리를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집사님 내외분은 너무 감사 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새 보급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박경숙 권사(MP)** 박경숙 권사님 가정이 지난 4월 30일 플러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바이올라 대학에 다니는 예주가 1년 기숙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누나를 그리워했던 아들이 새로운 보급자리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아울러 박경숙 권사는 5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브릿지캠프와 선교활동으로 한국방문을 합니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벨리지역 교역자 협의회 부활절 예배

지난 부활절 주일 새벽예배는 샌퍼난도 벨리지역 한인 교회 교역자 협의회 주최로 주안예교회에서 200여명의 벨리지역 교회 교역자와 성도님들이 모여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다.

주안예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주안예교회 성가대의 합창으로 시작하여 설교 말씀으로는 남가주 마라톤 교회의 김선일 목사님의 부활의 열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벨리 은퇴목사 회장인 문광현 목사님의 축도로 끝마친 후 주안예교회 권사님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주신 따로 국밥, 옥수수빵, 삶은 계란, 커피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하셨다.

참석하신 타교회의 많은 성도분들께서 올해 연합부활절 예배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안예교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 임용자 기자 |



### 꽃봉투 헌금

꽃과 보석으로 장식된 헌금봉투, 이름없이 드린 성도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성이 엿보인다. <벨리 재정국>

■ KARIS 프로그램

## “함께 모여 숙제하고 운동...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지난 4월 6일 토요일 주안예교회에서 카리스 아카데미 학교가 오픈되어 처음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카리스'란 헬라어로 은혜 또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부모님들께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일 것이다. 카리스 아카데미는 김민재 전도사님의 지도 아래 ICY리더들이 봉사 요원이 되어 1학년부터 8학년까지를 매주 토요일마다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첫날부터 3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들어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고 카리스 아카데미의 시간표는 첫째 시간은 숙제를 돌보아주고 리딩타임때는 매주 다른 내용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함께 리딩을 한다고 한다.

둘째 시간에는 과학 시간으로 첫번째로 식빵 비밀글씨 쓰기로 전 학년이 식초를 붙여서 빵에 글씨를 하며 감성교육의 집중했으며 화산 만들기를 하여 재미있는 과학 공부를 하였다.

셋째 시간에는 운동 시간으로 농구 태권도 등 매주 종목을 바꾸어 운동을 한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숙제 도우에 있어 전과



목을 다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첫날 점심은 목회부에서 만든 맛있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으로 제공되었다.

카리스 아카데미는 공부와 숙제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운동과 친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또한 카리스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ICY 리더들은 대학 준비를 위



한 봉사의 시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이번 학기 10주 가운데 두번이나 야외소풍과 현장체험이 있다고 하며 MP 학생과 타고인 학생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학생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 임용자 기자 |

■ IC KIDZ 부활절 행사

## “고사리 손으로 쓴 마태복음 책으로 만들었어요”

우선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고 흥미를 느끼고 감정선의 좌지우지 흔들리는 세대 입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의 가치를 넣어주는 것 역시 참 큰 도전입니다. 아이들이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듯, 말씀도 눈으로-기억으로-손으로 체험되는 삶의 습관을 들여주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말씀을 기억 속에 넣는 암송활동을 통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소그룹 시간에서 3개, 4개 넘게씩 말씀을 암송하는 걸 보고 예상했던 그들의 가능성을 보는 듯 하여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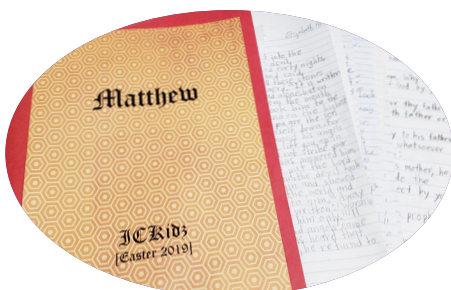
Easter month인 4월 한달간 동안에는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경건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중요한 절기 때에 전례적 말씀묵상방



법으로 성경을 쓰면서 앞으로 계속 성경필사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키즈부서 각 멤버가 담당한 한장씩들이 모여 마태복음 필사본(작은 사진)을 부활절 선물로 드렸습니다. 스탬플도 함께 참여하며 은혜를 나누어 주어 감사했습니다. (읽고 쓰는 가운데 더 머리에 남는다. 많은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읽은 편 이해 못하고 그냥 지나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다, 세심한 말씀내용이 손끝까지 체험되는 듯했다,

다른 글씨체-다른 나이대가 함께 한 권을 쓴 기쁨이 느껴졌다, 엄마와 함께 쓴 아이가 좋아라 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쓰는 기회도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추가피드백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신 음식으로 야외에서 피크닉을 하고, 팀 게임들을 하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안에 거하는 형제자매의 정을 나누고 즐기는 시간으로 Easter Celebration을 가졌습니다. | 이니를 전도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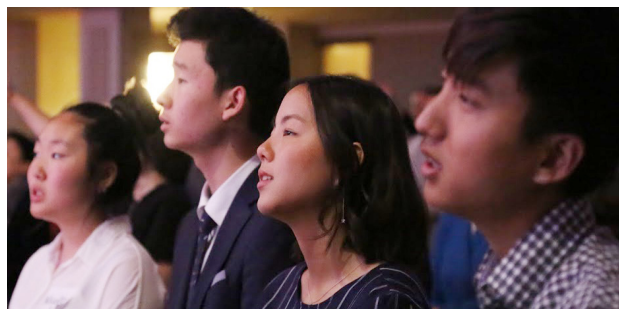
■ 세례식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4월 10일과 12일 저녁 주안예교회의 양쪽 채플에서는 주중영성예배 중 세례식이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세례식에 벨리채플에서는 4명의 유아세례자(박예영, 박주영, 엄세아, 장현우)와 3명의 입교자(Gloria Yi, 김나래(Kaylee), Joshua Kim), 그리고 4명의 세례자(최주안, 이민영(Nicole Lee), 이규진, 장혜정) 등이 세례예식에 참가함으로써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주변 교우들까지 모두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 오희경 기자 |



■ 입교소감- 정하나

"Happiest day in my life"

4월 9일(수요일) 저녁 7시 45분 '주안예생명 2'의 마지막 강의를 있던 날, 성찬식과 함께 정하나(Hannah Chung)의 '입교예식'이 있었다.



Hannah는 매주 1부 예배를 EM에서 드리고, IC KIDZ에서 Teacher로 봉사하고 있다. 이날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 IC KIDZ에서 Hannah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꽃다발을 선물하며, 선생님을 꼭~ 안아주는 장면이었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온 성도들이 축복하며 부를 땀 ICY아이들도 Hannah Teacher도 울고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꽃처럼 아름답다.

입교예식이 끝나고,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It was the happiest day in my life, I was (also) able to make up with my mother" 이라고 답하며 활짝 웃는다.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결단으로 '입교'를 결정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그녀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기도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 ICY Good Friday Service



##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 부활의 은혜를 마음판에

4월 20일 토요일, 약 30명의 ICY 학생들이 벨리채플 예배실에서 모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Good Friday Service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예배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대신 조금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바닥에 방석을 깔고 큰 원으로 앉아 기도회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아이들도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 하였는데요, 5가지의 말씀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구절 중 한가지는 요한일서 1장 9절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수많은 실수를 한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고 또 그런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는 다같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

지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 그리고 부활하신 장면들을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계속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되고 진부하다고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19년의 부활절이 그저 또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어린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 김민재 전도사 |





## ‘즐거운 만남, 풍성한 식탁, 주안에 한가족’

### ■ 부활절 바베큐파티

4월 21일 부활주일 예배 후, 코람데오 한어청년부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하고자 MP채플 인근 공원에서 연합바베큐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밸리채플과 MP채플의 연합으로 진행된 행사에 50여명의 청년들과 국장총무집사님들, 그리고 영커플까지 총출동하여 마치 명절날처럼 온 가족이 모인듯 시끌벅적 하였습니다. 밸리채플의 안진호, 희성 국장님, 윤세희 팀장님, 김은영 부팀장님, 그리고 이재은 사모님께서는 맛있는 야채무침을 준비하여 MP까지 먼길을 해주셨고, MP채플의 민에스터 국장님, 문수경 피택권사님, 한동수/이레베카 총무 집사님께서는 아침부터 고기와 각종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유학생들이나 혼자 살



한어청년부 '코람데오' 연합 파티를 통해 친교와 사랑을 나눴다.

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해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아 더욱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얼바인에서 차가 없어 나오지 못했던 친구가 차를 장만하여 나왔고,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방문하여 한동안 못나왔던 친구가 참석하였으며, 동생을 따라 온 언니내외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친구를 따라 참석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제자매들과는 서로 소개를 하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영커플 언니 오빠들과 근황을 나누며 여기저기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시간이 흘러 귀가할 시간이 되어 단체사진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아쉬

운 마음을 달래며 다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다음 명절날을 기다리자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한번 코람데오가 나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주 안에서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로 인해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어 모두가 배부르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주셔서 모든 행사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람데오 한어청년부가 이듬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교회 잔디밭 잡초제거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마지막 날인 4월 20일 토요일. 코람데오 청년들이 새벽예배 후 간단히 아침을 먹고 MP채플 잡초제거를 하였습니다.

고난주간 새벽예배 마지막날이라 조금은 피곤한 상태였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왔습니다. 김영기 장로님께서 어떻게 잡초를 제거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후 청년들이 도구를 가지고 흠어져 잡초제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벌레를 무서워하는 청년들도 많았지만 서슴없이 쭈구려앉아 오로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처음엔 장로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해도 잡초가 잘 안뽑히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익어 금방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서로 조잘조잘대던 소리도 어느새 없어지고 집중하여 뽑았더니 어느새 다 끝나있었



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뽑은 잡초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잘 처리하고나니 해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잔디밭이 은근히 넓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서로 도우며 하다보니 즐겁게, 빨리, 잘 끝났던 것 같습니다. 새삼스레 환경미화국분들

이 대단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뒤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구나 라는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청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혜리 성도 |

■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You love me even when I couldn't love myself"

Dear Mom, Throughout my life, you've supported me through absolutely everything. You are there at every stage of my life and you are my biggest, most dedicated fan since day one. You've always encouraged and motivated me even at my lowest time. I'm sure it was tough raising us. You put up with my unpredictable, incomprehensible mood swings and counter them with unconditional love and kindness. You love me even when I couldn't love myself.



Sue Han 집사(MP)

Mom, you see the best in everything and everyone. You've never started an argument or raised your voice at me, even when I deserved it. When I think of you I think of Galatians 5:22-23...The Fruit of the Spirit. I can finally appreciate all those qualities, and I have not met someone who embodies them as magnificently as you do. Your faithfulness has encouraged me to grow closer to God and your self-control is shown in your selflessness. Most of all mom, thank you for your endless prayers – getting on your knees every night for hours. I am truly blessed and thank God that you are a woman of prayer. You are the reason I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We know that everything we have and our being is God's grace through your prayer.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수고하셨어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불동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엄마! 이렇게 환갑을 훌쩍 넘겼는데도 난 아직도 엄마라라고만 불러지는지... 그게 더 편하고 좋아요.



박남진 사모(MP)

50세가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지요. 그것도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 위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인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방법으로 부모님을 찾아 오셨지요... 하지만 제가 닦고싶은 분으로 본이 되어주신 엄마가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뼈속까지 유교집안인 완고하신 외가댁과 친가댁의 가풍,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엄마의 삶을 기억합니다. 오직 순종으로 점액질의 기질을 다 쏟아부으셨던 엄마의 삶을요.. 수고하셨어요 엄마!

59세때 6개월 남았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 암덩어리가 빠지고 93세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만난 주님을 엄마는 또 고스란히 그렇게 섬기시네요. 이제 90세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독이상 성경통독하시고 새벽기도시간을 기다리시는 엄마! 우리 세 딸들이 외할머니는 역시 다르다며 엄지 척! 을 해주신답니다. 제가 어깨가 으쓱해지도록요.

엄마! 늘 보도싶고 그립습니다. 이렇게 엄마애기 썼다고 말하면 손사래를 치시며 아직도 소녀같이 수줍어하며 어쩔줄 몰라하는 엄마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도대장 엄마를 닦고싶은 딸이 보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자녀를 키우면서 아쉬웠던 일

"언제쯤에서 돌아올까..."

지난 주에 자식에게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한다는 어느 칼럼을 보고 아들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물어 보았다. 엄마가 너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니? You did a great job. 간단한 아들의 답변이었다.

1) 뭐가 옳고, 그른 행동인지 (선악의 분별) 의 문제 혹은 도덕의 문제 2) 받은 만큼 베풀고, 당한 만큼 갚아야 한다는(경우와 배려)의 문제, 혹은 복수의 문제 3) 스스로에게 어떤 자질이 있는지 알게 하고, 또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동기 부여)를 주는 문제 4) 어떻게 감정을 제어 하는지에 대한 훈련. 세상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가르쳤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가르쳐야 했던 것들은 빼놓지 않고 가르쳤을까? 가르쳤지만 따르고 있을까?

예전의 아이의 QT 노트를 보면 지금 아이의 생활은 너무 멀리 가 있다. 네가 소설을 읽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라. 네가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라. 네가 연극을 보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라. 허공을 치는 엄마로서의 말을 느끼면서도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돼." 하는 변명을 듣게 된다.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어째 성경이 어렵니? 하고 반박을 하면서 나 혼자 결론을 내린다. 역시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가 자라면서 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목사님들의 설교테이프 소리뿐이었다. TV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없이 말씀 테이프만 틀어놓던 나의 부엌은 아이 방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말씀만 듣고 자랐던 아이는 어느새 세상의 문화에 매혹되어 갔다.

토요일이면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LA타임지에 Calendar 를 보면서 가장 재미 있을 것들을 찾아 다녔다. Los Angeles Central Library 의 프로그램, 도서관 찬드라의 어린이 심포니, 연극과 오페라. 바닷가에 가서 불가사리를 잡고, 크리스마스 전등을 보러 요트를 타며, 유명 화가의 특별전은 빼놓지 않고 LACMA를 찾아 다녔었다.

홀부모로 자식을 키우며 필요한 부분을

놓칠까봐 Boy Scout를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의 권고로 시작하고 Eagle Scout이 되도록 뒷바라지 하면서 주일을 지키도록 애썼다. 다니던 교회가 미국교회를 빌려 쓰고 있어서 2박3일의 캠프를 끝내고 와도 아침 일찍 픽업해서 주일예배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첫 건축 헌금은 자기 저금통을 그대로 드리고, 고등학교 때 알아해서 번돈은 첫 열매라서 그대로 드리고, 첫 공연의 출연료는 첫 열매라고 드리고, 선교지에 가면 칭찬 받아 인솔자 장로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인사로 엄마에게 선물을 해서 엄마를 으쓱하게 했고, 썰치치의 리더로 아이들을 돌보던 애가 지금은 전혀 교회를 떠나있다.

이슈 우화처럼 생각되어질 성경의 이야기를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지침이 있다면 부모가 해줄 신앙교육의 지침이 될텐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주께 돌아올지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이다.

| 이예스더 기자 |



■ 주안에가족을 소개합니다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의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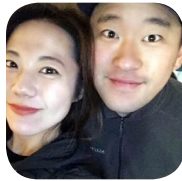
친구의 소개로 이전부터 최혁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를 다니다 늦게 등록하게 된 구인같은 새신자입니다.

말씀위주의 설교, 논리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교, 또한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는 설교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알았던 성경말씀들도 새로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중

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닫게 된 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알게해 주셨고 회복되는 그 시기에 때에 맞는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몇주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일치되도록 성경과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로 힘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사야 60:17 “..I will make peace your governor and righteousness your ruler”의 말씀처럼 성령이 항상 저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저의 본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하는 목사님과 교회되기를 기도하고 저로서는 교회봉사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에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는 교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유지, 이태호 성도 (밸리)

'no coincident but providence'

My name is Nano(Yermony) Khachatryan. I am Armenian, born and grow up in the city Yerevan. I moved with my daughter to US in 1999.

Growing up as a Christian, I always went to church, talking about God and praying. But about ten years ago, I got to know Christ and wanted to be in a real relationship with God. I understood what it meant to live as a believer. Since then I felt His grace and mercy on my family's lives. Being a single mother and raising a daughter far away from extended family was very hard. But I understand that there is no coincident,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My coworker Hannah Chae introduced ICCC to me. In the beginning I was going through some problems and seeking God everywhere. One Friday evening, I told Hannah that I would love to go with her to worship even though she told me that all going to be in Korean. I got to know how humble Koreans at ICCC are. I felt very welcomed and even made some very good friends. ICCC was the church which I was praying for because I was spiritual fulfilled.

Being Christian is a very hard journey with many spiritual warfare, but God is great. He is always with us, protect us, and never give us more that we can't handle. I hope grow in Christ at ICCC.



Nano Khachatryan (MP)

■ 주안에일꾼/ 구원혜 찬양인도자

두려움과 기대 속 순종의 길

2월 어느날, 점심시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찬양인도자로 섬길 수 있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처음 든 생각은 당연히 “No” 였고, MP 채플에서 이미 청년부 새가족팀장으로 섬기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소심하고 긴장도 잘하고 부끄러움도 많은 제가 많은 성도님들앞에서 찬양인도를 한다는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처음 거절의 말을 표현했을 때 목사님께서서는 제 거절을 거절하셨고,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랜 그 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으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과 어머니를 통해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세우시며 일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알



았지만 머리속에서는 아직까지 두려웠던 탓인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직까지도 찬양인도자라는 자리가 부담되고 온 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쓰시고자 하시니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동안 인도자로 섬겼지만 주님께서서는 구원혜라는 사람안에 많은걸 바꾸셨고, 더 뺏어가실 열매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힘든 순간들과 눈물의 순간들이 남모르게 있었지만 확실한건 그 시간들을 통해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밖에 남지 않았을 ‘찬양 인도자’라는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 May

MINISTRY CALENDAR

- 5/2(목) 추가임직훈련
- 5/5(주일) IC Kidz & ICY 어린이 주일 미니 운동회, EM 주안예살 2권 시작
- 5/10(금)-5/11(토) 제 1기 브릿지캠프 Korea
- 5/12(주일) 아버지 주일
- 5/18(토) 학부모 대상 성교육 세미나 (MP채플, 강사:이진아 전도사)
- 5/19(주일) 노후준비 세미나 (강사:알렉스 함 집사), 교육부 교사 감사주일
- 5/22(수) 상반기 주안에라이프 종강, MP 주안예살명 #3 시작
- 5/24(금) 밸리 주안예살명 #3 시작
- 5/25(토) EM City Outreach (1일 선교), 임직예정자 훈련



■ 새 목자 소개/ 문성훈 · 문수경(MP 15목장)

"받은 사랑과 은혜를 힘써 나누길..."

할렐루야! 저는 15목장을 맞게 된 문성훈, 문수경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한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목자가 되어 목원들을 섬기게 하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목자들과 같이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15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주안예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구역모임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1-1 목장의 목원으로 있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작은 목자로서 오찬국 안수집사 & 회경 권사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 나누는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목장은 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안예교회 엘리이 채플에서 부터 3년을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의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잘 섬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어떠한 환경이 처하든지 최고의 섬김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목원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주는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 사역국 소개/ 베들레헴국(벨리) 김준억 · 전익성

"맛있는 빵으로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맛있는 빵을 매주 공급하는 베들레헴 사역국을 소개합니다. 국장이신 김준억 장로님과 팀장인 전익성 안수집사님과 함께 도우미 서너명이 섬기는 작은 사역국 같지만 전교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역국입니다.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국장님은 멕시코에 선교를 할 때도 햄버거 300개를 만든 실력과 평소에도 교회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 분이지만 '빵 국장'을 맞고는 너무 열심히 맛있고 예쁜 빵을 만듭니다.

팀장 전익성 집사님은 한국에 나가 제빵학교를 다니실 정도로 열정이 넘치시고, 모든 재료 구입과 빵 제조를 국장님을 도와 멋진 사역을 하십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후 부터 종일토록 빵반죽과 모든 준비를 하시고는 주일 새벽 5시에 교회 오셔서 발효시켜 놓은 반죽으로 빵들을 만들어 성도님들을 섬기는 봉사는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이 들지라도 마음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매주 완판으로 끝나 나중에 오신 분들은 맛있는 빵을 맛 볼 기회도 놓쳐버리는 아쉬움이 있지만 장로님께서서는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친교와 소통의 장이 열리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베들레헴 국장님과 팀장님 모든 팀원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임용자 기자 |

필승전략, 긍정의 힘 (Be deaf to negative thoughts)

'한 그루 나무로 천 개비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천 그루 나무를 태워버리는 건 성냥 한 개비다(One tree can make a thousand matches, but one match can burn a thousand trees.)' 이 은유는 '부정적 생각 하나가 모든 긍정적 생각을 죽인다(One negative thought can burn all positive thoughts)'는 뜻입니다. 반대로 '쿵푸 팬더(Kung Fu Panda·사진)'는 모든 비관적 생각을 이기는 긍정의 힘을 노래합니다.



주인공 판다는 쿵후 입문자입니다. 그런 데도 최고수 지위인 '용의 전사(戰士)'로 간택(簡擇)됩니다. 잠재력을 알아본 큰 사부(師父)는 그에게 마을의 평화를 맡깁니다. 판다의 적수인 눈표범은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한때 후계자였지만 그가 약함으로 변해가자 큰 사부가 가뉘버린 겁니다. 눈표범은 쿵후 비법이 적힌 비밀 문

서를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하려고 베틁니다. 판다는 놈의 위험한 야망을 막아야 합니다.

무사 판다는 신체적 약점이 큼니다. 그걸 그만의 필살기인 배치기 권법으로 극복합니다. 한편 눈표범이 교도관 1000명을 제압하고 탈옥합니다. 마침내 만나는 판다와 눈표범. '용의 전사'가 판다이니 얼마

나 가소로웠을까요. 눈표범은 실력을 깔보고 외모를 비하합니다. "너 따윈 내게 어렵없어." 무술 수준이 분명 하수인데 놀랍게도 승자는 판다입니다. 어떤 전략이 통했을까요. '개구리 우화'에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나무 꼭대기에 오르겠다고 하자 모든 개구리가 외친다. "어렵없어." 개구리는 묵묵히 올라 정상에 선다. 비결이 뭘까? 이 개구리는 귀가 안 들린다. 그래서 모두가 소리칠 때 그는 그걸 응원의 함성이라고 믿은 거다.' 교훈이 명료하지요. '자기 생각이든 남 생각이든 부정적인 건 무시하라. 그러면 네 목표를 이룰 수 있다(Be deaf to negative thoughts if your aim is to reach your goal).' 긍정적인 판다도 남의 악담을 흘려들었기에 승자가 된 겁니다.

<조선일보 이미도의 무비 識道樂 에서>



■ 주안에생명 1, 2를 마치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말씀의 터 위에 믿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BACK TO THE BASICS 라고 해서 뭐 다



이현보 안수집사(벨리)

아는것을 또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주 했지만, 정말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며 또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기초가 이번 "주안에생명" 강의를 들으면서 철근과 시멘트로 다져진 구조물처럼 단단해지고 새롭게 세워져서, 어떠한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않고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내가 되기를 다짐하며 또 기도 드린다.

아침해가 떠오르면 사라지고 말 안개처럼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를, 너무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드린다. 하박국 3:17-18 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 드린다. 갈라디아서 2:20 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 드린다.

"주안에생명 - Back to the Basics" 구성표

- 1단계: 신앙의 기초내리기
- 2단계: 신앙의 뼈대세우기
- 3단계: 신앙의 외벽과 내장공사

주안에생명#3 시작

MP채플 5/22(수) | 벨리채플 5/24(금)

신앙의 정체기를 극복케한 소중한 시간

개혁교회에 다니다가 최혁 목사님의 말씀 CD를 듣고 주안에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도 잠시, 몸이 아프고, 마음도 무거워지면서, 어느 순간 찾아온 '신앙정체기'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괴로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안에생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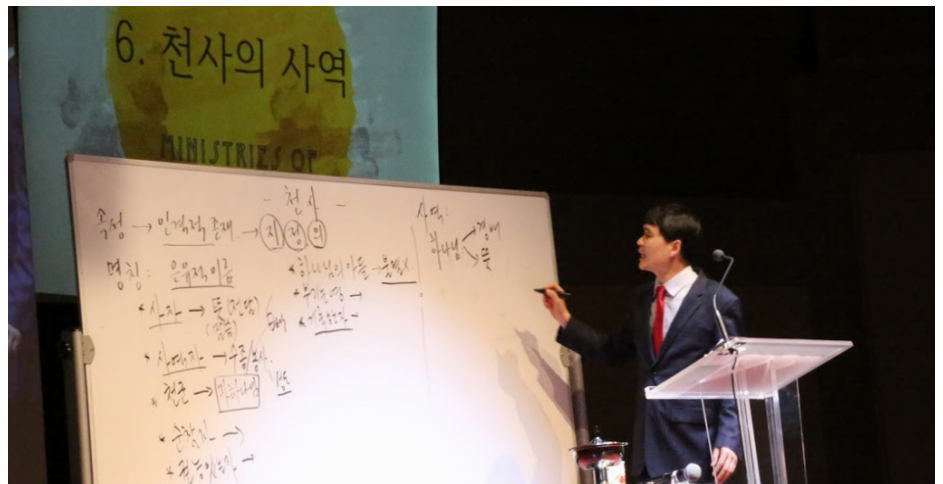
'주안에생명 1,2'를 배우고 지나는 동안 '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을 통한 죄 사함, 천사, 그 동안 금급했던 모든 것이 명쾌해지는 느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복을 주시지만 그 선물에 집중된 우리 마음을 선물로부터 떼어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고, 온전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도 알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공동체를 통해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기는 '섬김'의 중요성도 알게되었고, 또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자 가슴이 먹먹해지며 그 동안 스스로를 움아매던 울무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네요. 주님을 더 알고, 가까워지게 된 '주안에생명2'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저는 벌써 다음 '주안에생명 3'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란희 집사(MP)



최혁 담임목사가 강의하는 주안에생명 3기가 5월 22일(MP), 24일(벨리)에 시작된다.

긴 방향을 끝나게 해 준 은혜에 감사

모태신앙인 나는 20대 이후 그 누구에게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 사남매중 막내인 나에게는 형제자매의 손에 이끌려가면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재미있는 곳이 교회였다.

그렇게 성장한 나에게 20대는 먹고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벽이 생겼고 난 현실과 타협하며 주일예배를 지키지 않게 되었다. 그런 나는 믿음,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분이 누구인지 잊은 나에게서는 역시 교만과 아집 이런 못된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었다.. 어둠 속의 삶... 그런 나를 주님은 기다려주

시며 잊지 않고 인도해 주셨다.

지금은 아내가 된 하나님을 통해 힐링캠프로 인도해 주셨고 주안에교회를 섬기게 해주셨고 주안에생명으로 늦은 후회로 인한 나의 신앙적 갈등을 해소해 주셨다.

그 긴 세월을 돌고 돌며 내가 잊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아직도 먼 그 길을 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려 한다.



정준하 집사(MP)



■ 텃밭 가꾸기-고추 재배

모종 심은 후 한달간 매일 물주기... 첫 꽃은 따줘야

한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중 고추는 멕시코 지역이 원산지인데 유럽으로 전해 졌다가 다시 인도, 중국으로 퍼졌다. 우리나라에는 서기 1500년대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최근 조선 성종 때 씌어진 '구급간이방'이란 책에서 고추에 대한 서술이 발견되고 1500년 보다 전에 저술된 다른 몇몇 책에서 고추와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알려져 우리나라에 전래의 토착 고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곳 미국동포들도 고추를 많이 애용하는 데 특히 풋고추를 좋아한다. 코리아타운에서 판매되는 채소 모종이 대략 15가지 정도인데 그중 풋고추 모종이 반 이상의 양을 차지한다. 이렇게 인기 있는 풋고추를 손쉽게 가꾸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A. 모종 심기:** \*고추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므로 4월 5일이 심는 적기라고 할 수 있는데 꽃이 한 두개 핀 모종이 좋다. 모종은 대가 굵고 잎과 잎 사이가 가까운 것이 좋다. \*모종을 심기 전 거름흙과 발 흙을 1:1로 섞은 흙을 준비한다.



\*모종과 모종 사이가 40cm 정도 되게 깊이 10cm 넓이 10cm 정도의 구멍이를 판 후 구멍이에 물을 반 정도 채운다. \*물이 스며든 후 구멍이에 거름흙과 발 흙을 넣은 후 모종을 넣고 발 흙으로 구멍이를 덮은 후 손으로 살살 눌러준다. \*다 심은 후 포기 주위에 물을 뿌리가 젖을 만큼 준다.

**B. 물주기:** \*모종을 심은 후 1개월간은 매일 물을 주고 그 후 1개월간은 2일에 한번 2달 이후는 3일에 한 번씩 주어도 된다. \*물을 줄 때 물에 튀어 있거나 가지에 흙이 묻지 않게 한다. 흙에 있던 탄저병균이 고추에 옮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C. 웃거름주기:** \*모종을 심고 3~4주 지나서 열매 맺는 채소에 주는 유기농 비료를 한 포기마다 한 테이블 스푼의 양을 포기 주위에 골고루 준다. \*매월 한 번씩 웃거름을 주면 좋는데 풋고추를 원하면 8월까지 주고 빨간 고추를 필요로 하면 2~3번만 주고 그친다. 웃거름을 계속 주면 고추가 붉어지지 않고 풋고추만 계속 열린다.

**D. 결순 따주기와 버팀목 세우기(사진 참고):** \*모종을 심은 4주경 고추 원대가 3가지로 갈라진 후 세 가지 밑에 있는 새 결순과 잎을 전부 따준다. \*모종의 첫 번째 핀 꽃을 따준다. 꽃이 피고 바로 열매가 열리므로 꽃과 열매로 영양분이 몰려 고추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모종을 심은 후 3~4주경 고추 포기마다 60~70cm 길이의 버팀목 나무를 꽂아 준다.

| 나형철 기자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6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